

총장에 대한 의견

<p>총장단이 해야할 1덕목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 전시행정을 하는게 아닌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교수들의 연구환경 개선과 동문출신 기업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낮은 자세로 봉사할때 비로소 상명대의 올바른 비전이 수립될수 있는 가장 큰 책임을 짊어진 봉사의 자리입니다. 현 총장단이 누구를 위해 일하고 계신지 진중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p>
<p>학과와 정체성이나 유지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에서 학과 교수들을 배제하는 등 독단과 독선 아집으로 몽친 총장의 직책유지를 절대 반대합니다</p>
<p>총장은 봉사하는 자리이지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는 아닙니다. 권력이 필요하면</p>
<p>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하셨는데..지금 우리 학교는 교직원을 머슴 부리듯 하는 총장은 필요 없습니다</p>
<p>첨단교육이 필요한 이 시기에 학과발전을 통한 학교발전 및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비전을 총장님과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p>
<p>비정년트랙 교수들은 적은 급여때문에 경제적,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이 매우 시급합니다.</p>
<p>교무위원 선임, 유임, 해임 과정이 매우 부적절하다.</p>
<p>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구성원들의 호응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자신을 임명한 누군가의 심기만 살피며 대학을 부정부상태로 만든 장본인이다.</p>
<p>교수들의 면담 요청도 거부한다고 들었는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p>
<p>학생을 위한 학교의 발전방향이 지금 올바르게 실천되고 있는지 검토바랍니다.</p>
<p>비정년트랙에서 정년트랙 전환 인원을 확대해주시고, 비정년트랙 교수에게도 연구년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p>
<p>이사장과 총장의 알력, 이사장과 전 이사장의 알력 등 상명의 구성원으로서 자괴심이 깊다. 이 모든 책임들에 총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상명의 발전을 위해 총장은 하루빨리 사퇴해야 한다.</p>
<p>학교 발전을 위하여 이제 그만 내려오시는게</p>
<p>그동안의 경영능력은 이미 검증되었으므로 홍성태총장은 해임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학내 갈등과 발전을 저해하는 불신과 불협화음 및 정책 표류 등의 문제를 책임져서 해임되어야 한다. 학교발전을 위한 선택은 홍성태 총장의 해임이어야 한다.</p>

아무것도 안하고 특정인의 라인에 선 사람..학교가 망하든 말든 신경안 쓰시는 분..이제 정말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학교의 존립을 위해 그만 물러나 주세요
학생들과의 소통은 좋습니다.
상명대 총장, 기획 부총장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신다. 모멸감을 느낀 적이 있다. 공동체 사회에서 타인을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대학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은 전혀 없이 즉흥적인 운영과 독단적 인사권 행사로 정상적인 대학이라 간주할 수 없는 현실을 만든 총장단의 즉각 사임을 요구한다므로 평가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이제 그만 둘 때 됐습니다.
제발 공적인 교무위원 인사를 조속히 시행해주십시오. 이사장과 알력다툼이 있다고 하던데, 이 상태로 학교가 더 위급한 상황에 처할까 걱정입니다.
이 대학이 이렇게 된 것에는 구성원의 무관심도 한 몫하였습니다. 더 이상 방관하고 외면하면 안됩니다.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총장단과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임기 초기에 그렇게 강조하시던 의사소통은 지금 어디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은 무릇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옛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교원인사를 총장이 졸업한 대학에 한해서 편파적으로 하고 있고, 대학의 재정 건정성 확립을 위한 기부금 모금운동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학생들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있음
학교의 비전을 밝혀 주시고 교원 총원 및 임금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계약기간이라는데 있고 어떠한 의사결정으로 선출이 되었기에 이렇게 설문을 하는 것은 오히려 대학과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에게는 혼돈과 혼선을 주고 보직자들이 일하는데 어려움만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총장과 같은 핵심 보직은 늘 어려움과 민심?을 얻기 힘든 자리인 만큼 우리 구성원이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오히려 총장의 능력에 대한 걱정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걱정이 더 큼니다.
만족함
총장뿐 아니라 기획부총장 및 교무처장님 등 현 총장단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모든 보직을 특정대학과 학과 출신들이 독점함으로써 학교 경영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할 창구가 없습니다

책임감 있게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총장님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는 기획부총장과 교무처장만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상명대학교를 위기국면으로 몰고가는 근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총장이라는 사실임을 명확하게 알게되었습니다. 총장은 기획부총장, 교무처장과 함께 동반사퇴하기를 요청합니다.
교수의 직분을 잇고 재단의 000 노릇을 하고 있으니 물러나시오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공유하지 못 하는 현 총장은 이제 제발 물러나 주시길. 지난 2년 반이 너무 힘들었는데 아직도 1년 반이 남았다는 사실이 절망스럽네요.
과연 총장은 상명대학교를 대표하는 자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총장직을 유지한다면 최악의 총장으로 길이 남을것입니다. 용퇴하십시오
조용하다고 제대로 가는 줄 안다면 오산입니다. 들어야할 곳은 캠퍼스에 있는 교수들 목소리입니다. 엉뚱한데 쳐다보지 마세요
주차문제 해결 시급. 어느 조직도 민원발생 이유 또는 소송위험으로 문제를 방치하지 않음. 왜 학생차를 통제하지 않는지. 본부 주차장부지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적극적인 해결로 교수들로 하여금 학교에 오고싶도록 개선해주시길,
비전과 목표도 없이 몇몇 교무위원에게 맡겨 학교를 너무 혼란스럽게하고 있으며, 구성원들과의 진실된 소통의 기회도 마련하지 않는.....무능한 총장으로 기억될듯 합니다.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부총장도 총장단인데 왜 불신임투표는 하지 않나요? 천안캠퍼스를 대표하는 부총장임에도 재단과 총장의 허수아비입니다. 자기가 있는 학과는 저렇게 버젓이 학과를 유지하는 와중에 다른 과 교수들에게 무전공을 강요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부총장을 하고 있나요. 퇴임이 몇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안위를 중심으로 하는 처사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한달 임기가 남았다고 해도 봐 줄 수 가 없는 정도입니다.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와 원활한 의사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생각됨.
한 학과에서 총장과 부총장을 모두 맡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기획부총장에 대한 의견

<p>기획부총장 역시 물러남이 마땅하다.</p>
<p>총장단이 해야할 1덕목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 전시행정을 하는게 아닌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교수들의 연구환경 개선과 동문출신 기업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낮은 자세로 봉사할때 비로서 상명대의 올바른 비전이 수립될수 있는 가장 큰 책임을 짊어진 봉사의 자리입니다. 현 총장단이 누구를 위해 일하고 계신지 진중히 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p>
<p>총장과 마찬가지로 학교행정에 심각한 독단독선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개입 및 협박 등 학교를 이끌어나가는 자리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됨</p>
<p>소통이라는걸 모르는 사람은 직책을 맡으면 안됩니다. 안하무인... 동료의식 결여, 화무십일홍... 한줌도 안되는 직책이 권한인줄 아는...</p>
<p>쓸데 없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만 하시지요.</p>
<p>지금까지 절차와 원칙에 맞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학교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소통을 통해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처우 개선에 대하여 꼭 신경써주십시오</p>
<p>우리 대학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정책의 방향성도 없이 특정인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며 기획부총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 대학 정책을 어지럽힌 장본인이다.</p>
<p>업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의견은 무시하고 본인의 주장만 내세우는 독단적인 사람</p>
<p>부총장직은 구성원들을 위한 봉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고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며 품격없는 처신을 하고 있어 부끄러울 정도임. 당장 교체해야 함.</p>
<p>총장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 앞에 있는 답변으로 같음합니다.</p>
<p>공대에 대한 편파적인 기획정책을 비롯해서 매사 공격적인 대응책은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학팀 편성을 통해 학과사무실 및 학생공부/휴게공간 제거 등 무엇이 나아진게 없는듯 합니다. 무전공 입학 계획에 대한 불평등 인원분배도 다시 점검 바랍니다.</p>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위해 교칙을 마음대로 바꾸고 구성원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결국에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학내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소통 문제가 심각하다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직하고 투명하게 정책을 수립해야 마땅한데, 정반대로 진행되면서 구성원들의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직책에 걸맞는 언행의 인사로 교체하는 일이 시급하다

기획부총장 권기환은 해임되어야 한다. 학내 갈등 유발의 원인자이기도하며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기피하면서 학내 정상적 운영을 파행시키는 자이다. 권기환 기획부총장의 해임은 상명발전의 최우선 대책이다. 사실과 다른 발언에 대한 책임규명 등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학교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한 장본인임. 매번 딴 사람 탓만 하지 말고 본인의 역량이 안되는거니 그만 물러나 주세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있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일개 보직자에 불과한 기획부총장은 동료 교수들에 대한 일말의 존중 어린 태도도 보인 적인 없으며 말바꾸기와 눈가리고 아웅하는 기망적 행태를 일삼아 온 것에 대해 전체 교수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즉시 보직을 사임하라.

우리 학교가 이토록 소통불능이 될 줄이야. 기획부총장의 잘못이 큼니다.

왜 구성원 전체 대상이 아니라 학과단위, 단과대학단위로 별도 미팅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팅 별로 다른 얘기와 즉흥적 발상. 그리고 다른 발표의 내용. 난 소통에 최선을 다했다는 호소. 이런 식의 운영은 무의미하고 불신만 조장합니다. 스스로의 무능을 깨우치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마지막 행동입니다.

10년 후 학교의 모습에 자신이 있나요?

봉사직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나 전체교수회의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무례하고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고쳐야 함.

학교의 미래를 위해 시간이 없습니다. 더이상 뒤로 가는 정책은 그만하고 기획적인 일들로 학교의 발전에 앞장서 주세요

현 기획부총장의 자리와 업무는 부총장의 능력을 떠나 매우 힘든자리이며,

매우 어려운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이다. 그 누가 와도 매우 어려운 자리와 숙지해야 할 것이 많은 자리인 것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우 중립적인 교원으로써 이러한 여론과 조사가 과연 대학의 주인인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걱정입니다.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사려됨.

기본적인 언행이나 사고가 부총장은 물론 교수로서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학교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물론 내부 직원들이 학교에 대해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부총장 인사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계속 있나요? 기획처장을 부총장급 지위로 격상시킨 이유가 있을텐데...현 기획부총장님이 상명의 현재를 개선하고 미래를 설계할 능력이 있는 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행태를 계속 보이시는군요. 역시 절망스럽습니다.

교수님들은 가르칠 대상이 아닙니다. 설득의 대상도 아닙니다. 대화의 상대로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바랍니다

매번 교수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삼사해주기 바랍니다.

제발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진실된 모습으로 임해주십시오.

천안김미형 부총장에 대한 불신임투표는 왜 안 하나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논란이 되는 이슈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주기 바람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업무에 대한 신뢰도나 구성원에 대한 태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며 개선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 학과에서 총장과 부총장을 모두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단 신임도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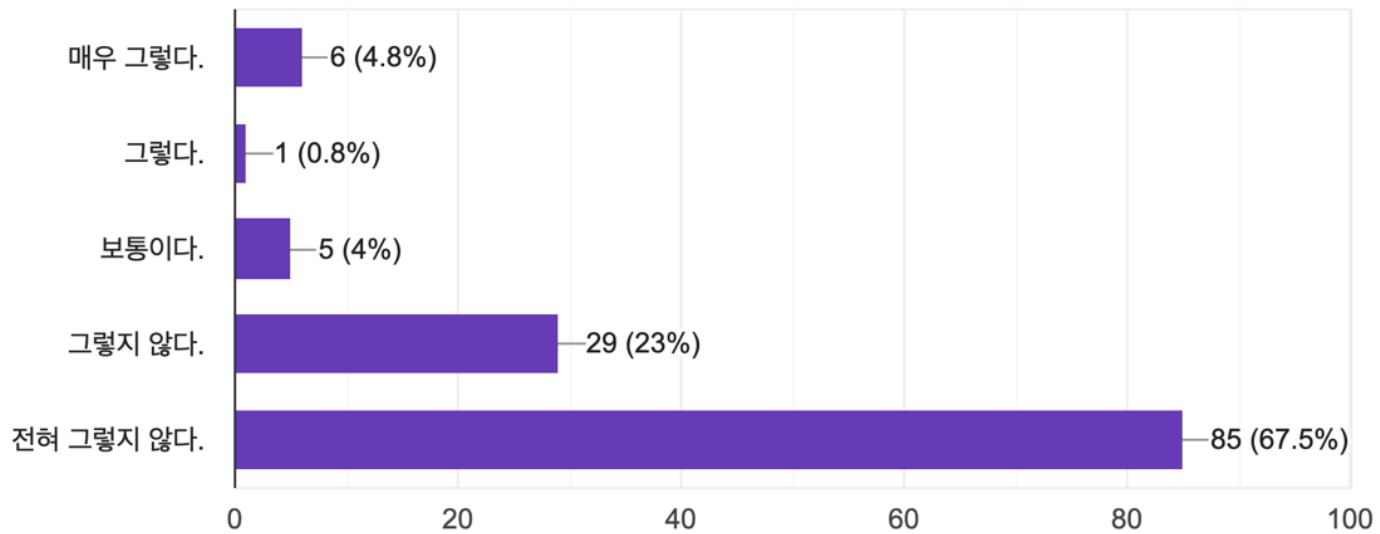
응답자: 총 126 명

설문기간: 2024 년 5 월 10 일 - 5 월 19 일

총장에 대한 신임 여부 설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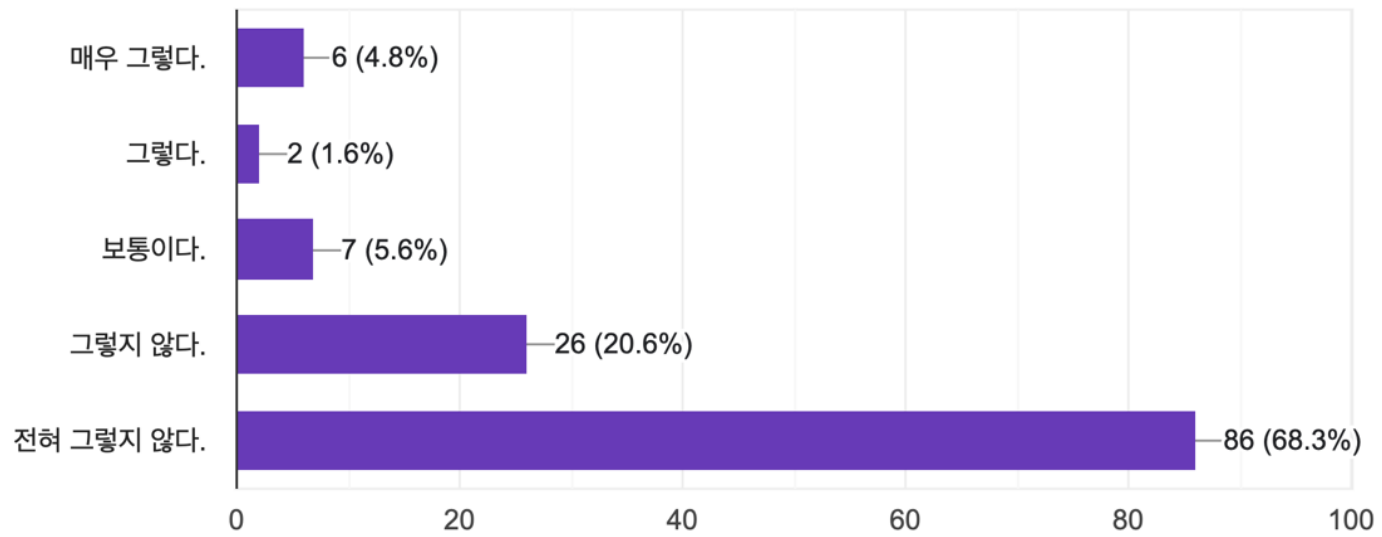
홍성태 총장은 상명대학교의 총장으로서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다.

126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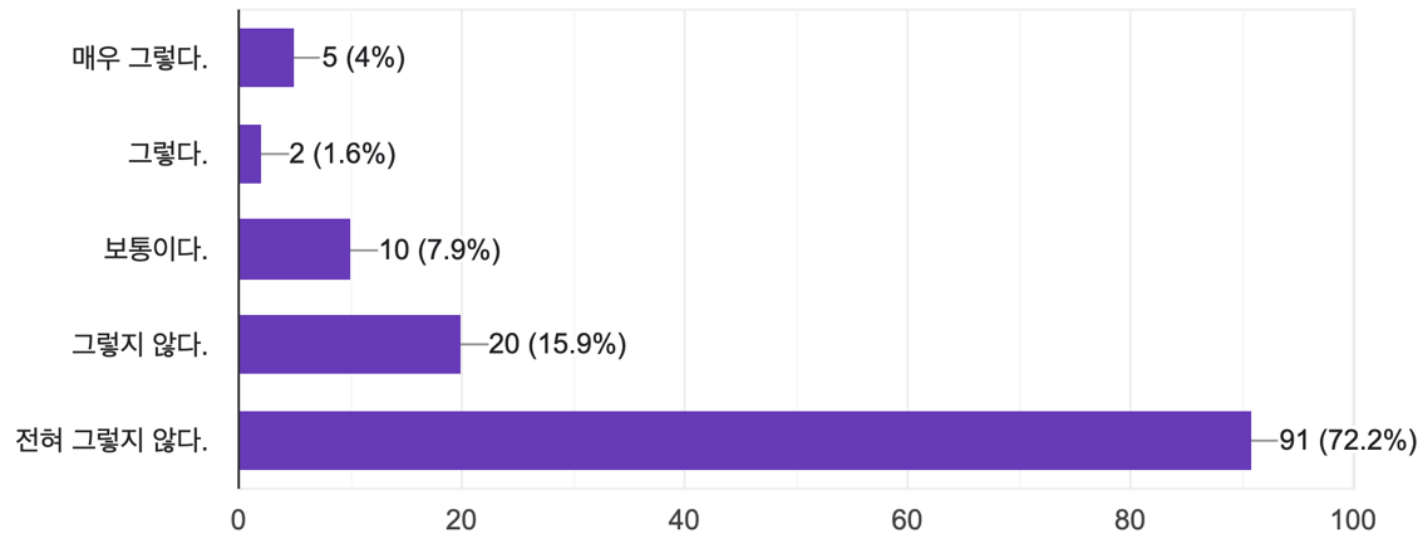
홍성태 총장은 계속 상명대학교 총장직을 수행해야 한다.

126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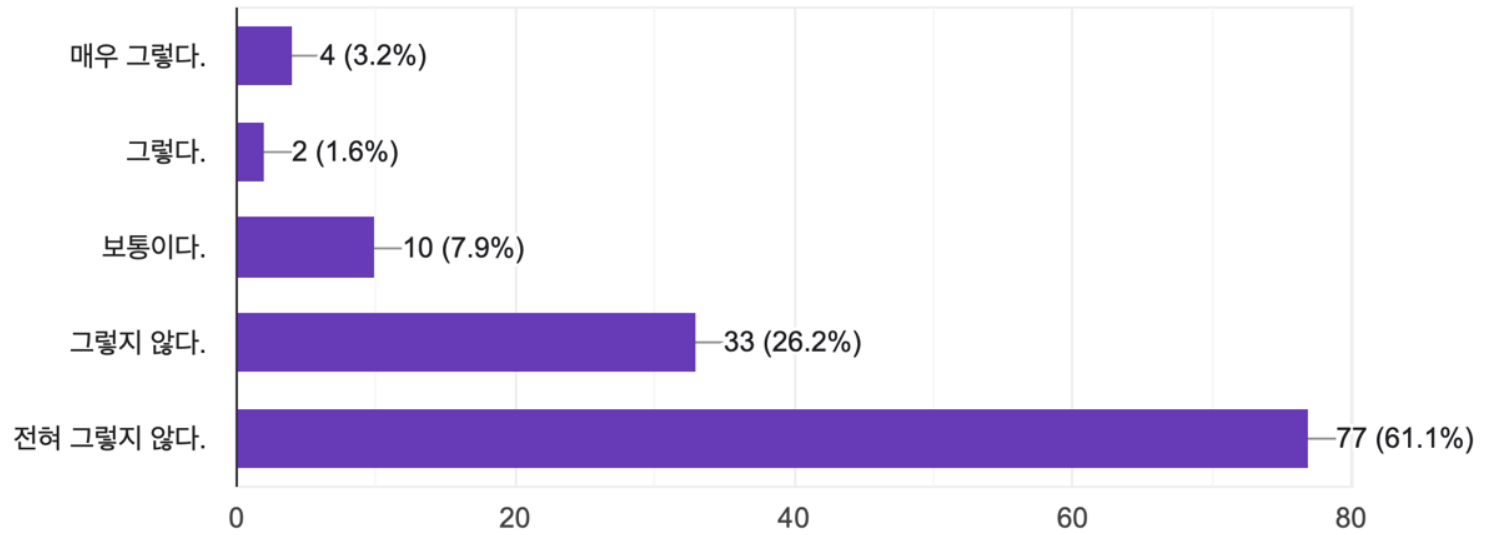
총장은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구성원들에게 제시하였다.

126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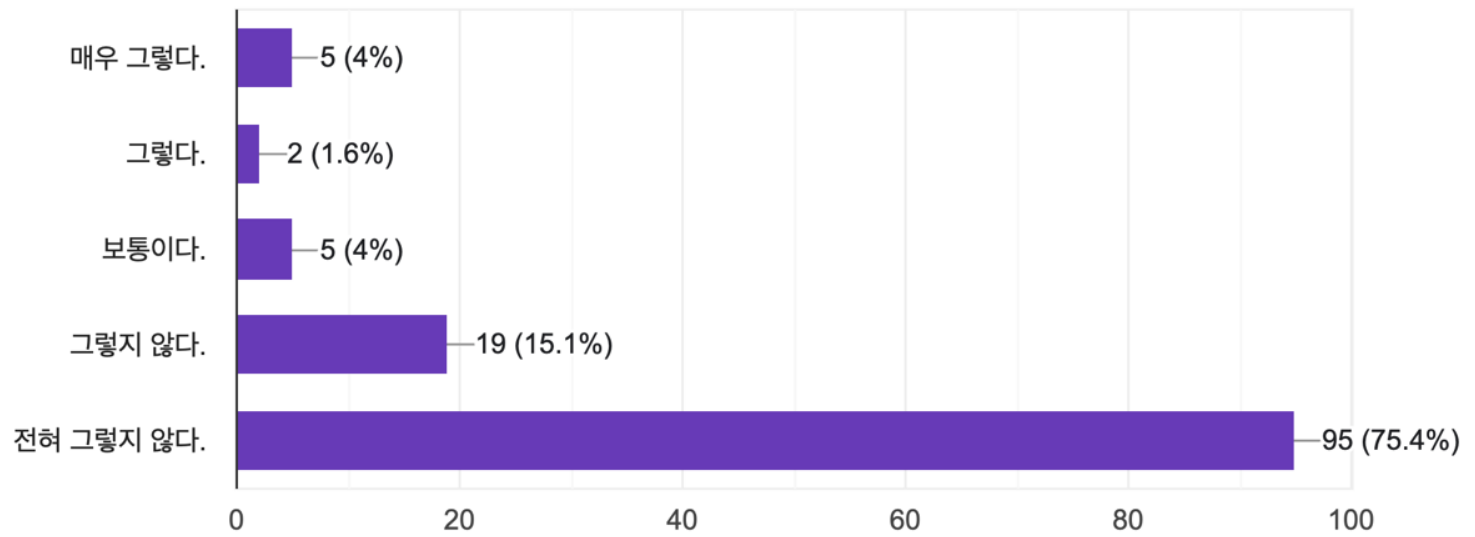
총장은 대학의 재정건전성 확립(등록금외 수입증대, 국고지원금 확대, 발전기금 유치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6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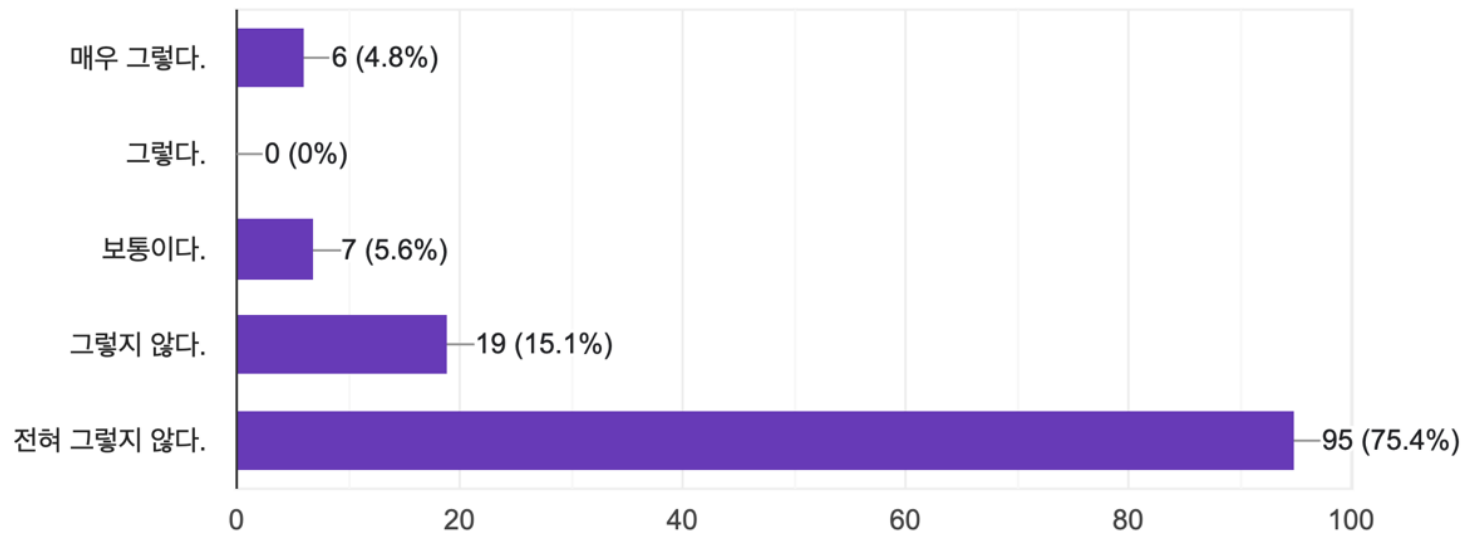
총장은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구성원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

126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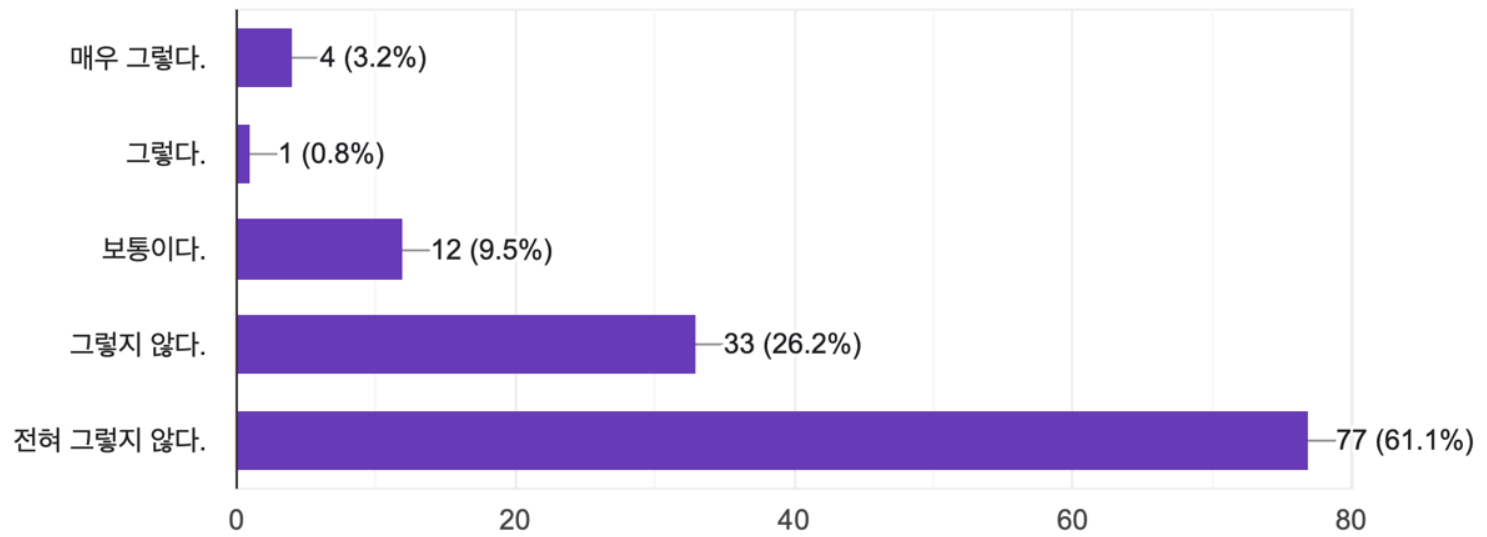
총장은 교원 인사(교무위원 선임 등)에서 다양한 분야와 출신의 교원을 고루 기용하고 있다.

126 responses



총장의 현행 교수총원 정책(비정년트랙 중심의 교수총원 등)이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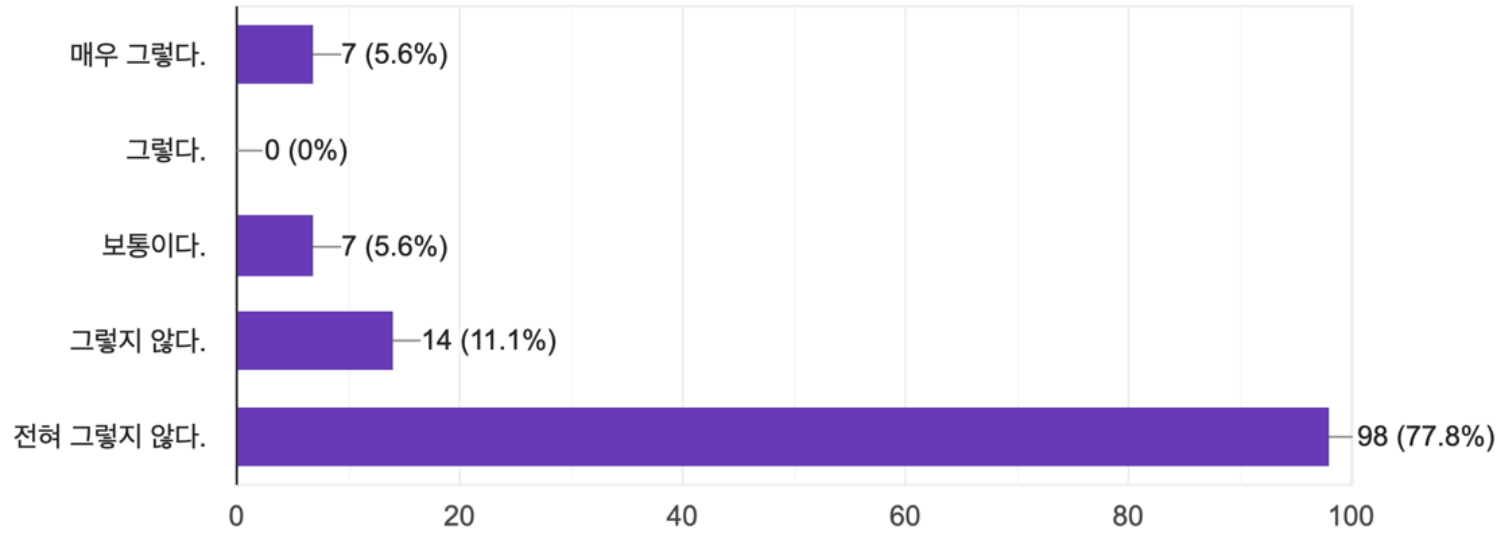
126 responses



기획부총장에 대한 신임 여부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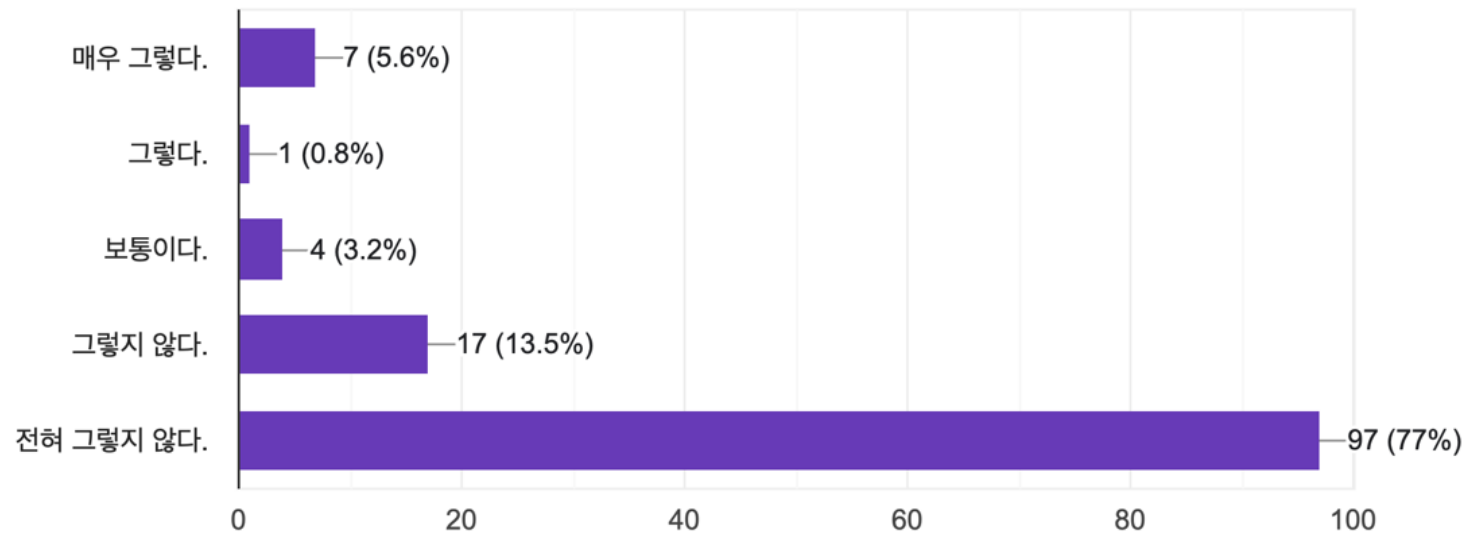
권기환 기획부총장은 상명대학교의 기획부총장으로서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다.

126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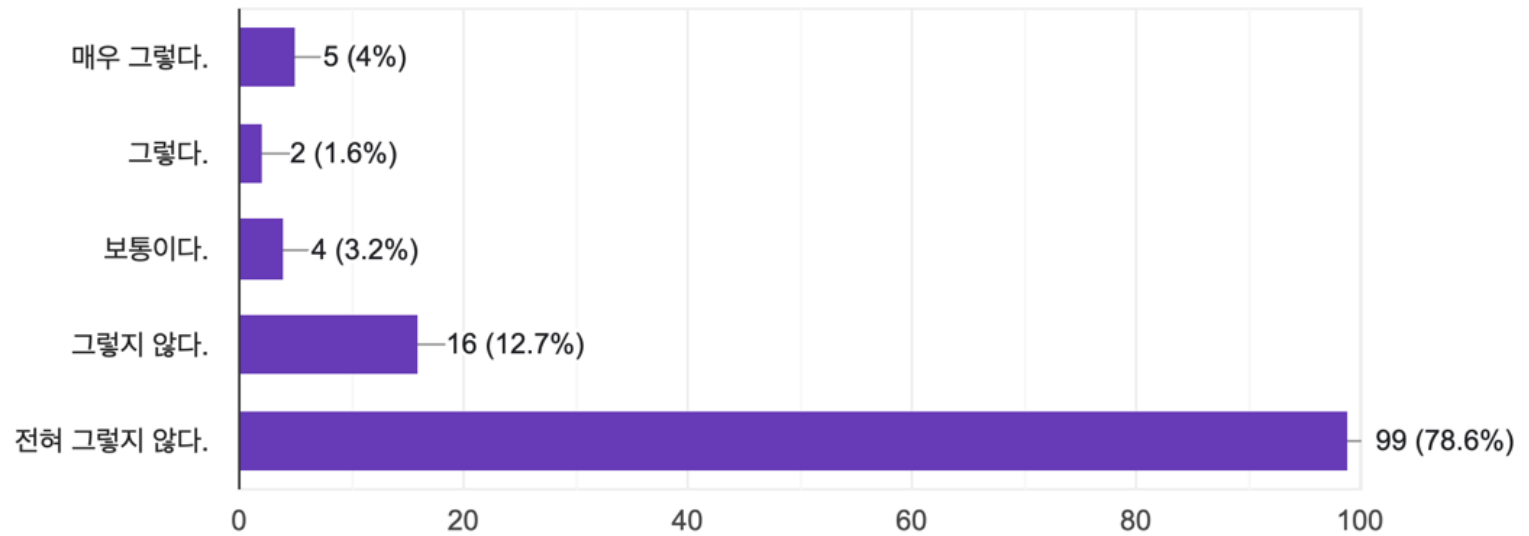
권기환 기획부총장은 계속 상명대학교 기획부총장직을 수행해야 한다.

126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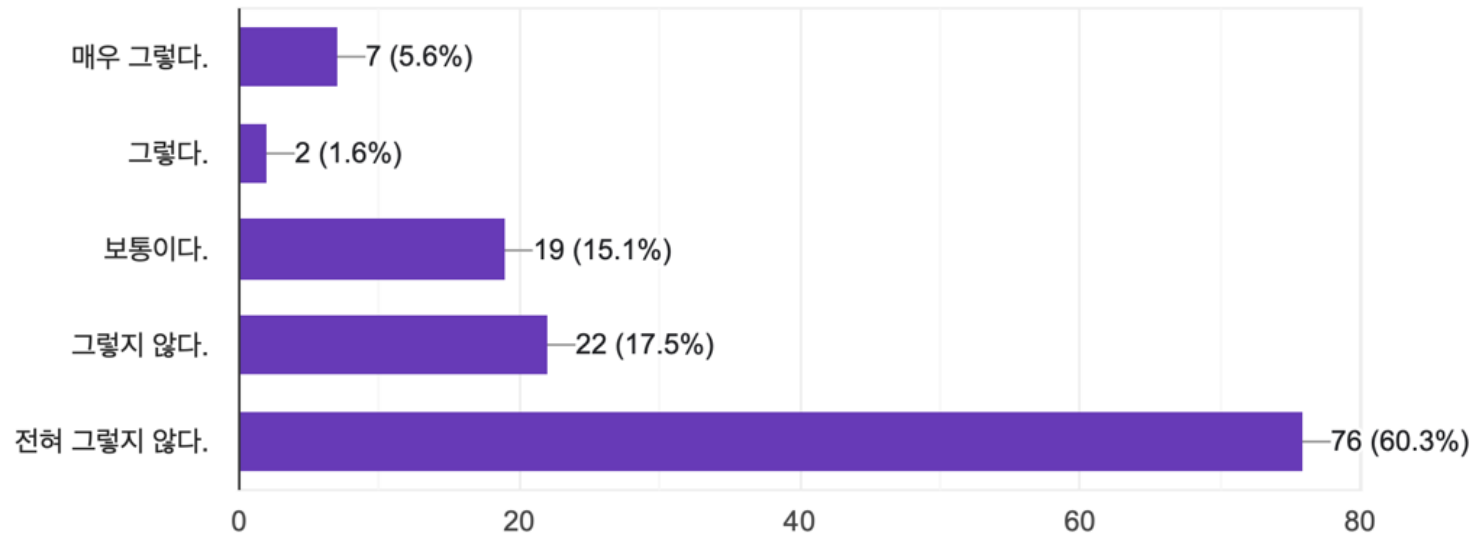
기획부총장은 기획업무(학사구조 개편, 학생정원 조정, 공간 조정, 부서간 업무 조정, 예산운영 등)의 책임자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126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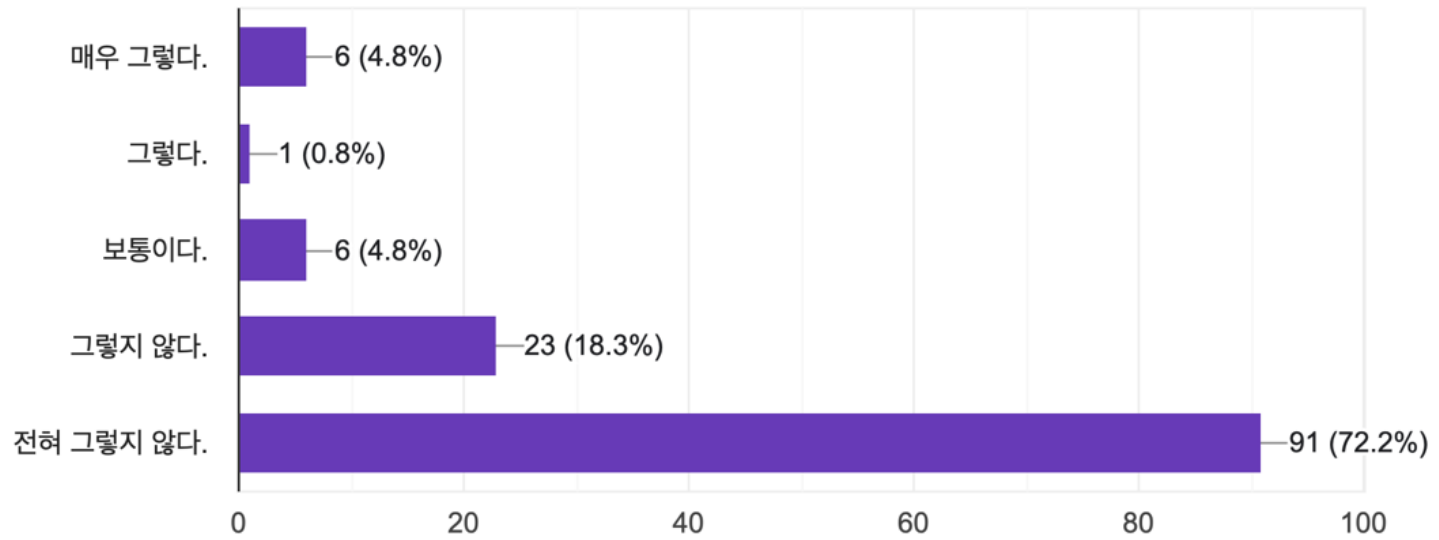
기획부총장은 교육부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필요성,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하고 있다.

126 respo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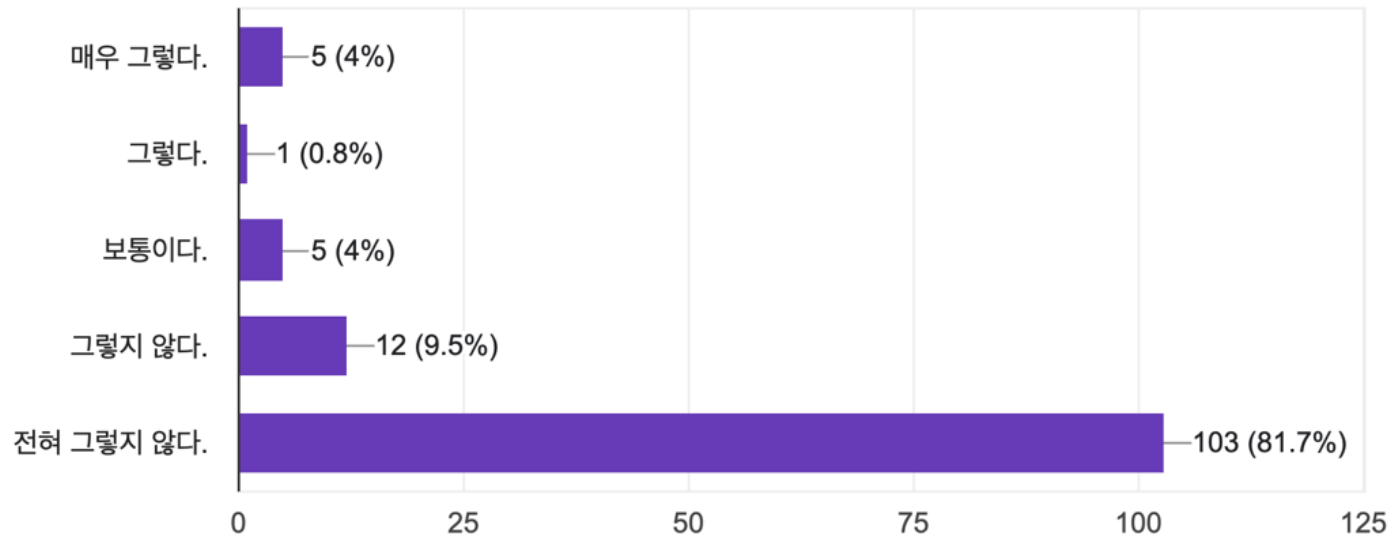
기획부총장은 교육부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왔다.

126 responses



기획부총장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성원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

126 responses



총장단 신임도 설문조사

이 조사의 목적은 총장과 기획부총장에 대한 여러분의 신임도(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도)를 묻고 그 이유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법인과 모든 교수님에게 알려 대학 정상화에 일조하는 데 있습니다.

※ 일부 문항은 작년 수행된 직무수행평가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의 응답한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분석의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바쁘시겠지만 교수님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설문에 참여해주시요.

설문 기간: 2024.5.10.(금) ~ 5.19(일)

설문 방법: 이메일과 Google Forms를 이용

* Indicates required question

총장에 대한 신임 여부 설문

1. 홍성태 총장은 상명대학교의 총장으로서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다. *

Check all that apply.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홍성태 총장은 계속 상명대학교 총장직을 수행해야 한다. *

Check all that apply.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총장은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구성원들에게 제시하였다. *

Check all that apply.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 총장은 대학의 재정건전성 확립(등록금외 수입증대, 국고지원금 확대, 발전기금 유치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Check all that apply.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총장은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구성원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 *

Check all that apply.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 총장은 교원 인사(교무위원 선임 등)에서 다양한 분야와 출신의 교원을 고루 기용하고 있다. *

Check all that apply.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 총장의 현행 교수총원 정책(비정년트랙 중심의 교수총원 등)이 적절하다. *

Check all that apply.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8. 총장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써주세요.

기획부총장에 대한 신임 여부 설문

9. 권기환 기획부총장은 상명대학교의 기획부총장으로서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다. *

Check all that apply.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0. 권기환 기획부총장은 계속 상명대학교 기획부총장직을 수행해야 한다. *

Check all that apply.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기획부총장은 기획업무(학사구조 개편, 학생정원 조정, 공간 조정, 부서간 업무 조정, 예산운영 등)의 책임자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Check all that apply.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12. 기획부총장은 교육부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필요성,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하고 있다.

Check all that apply.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13. 기획부총장은 교육부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왔다. *

Check all that apply.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14. 기획부총장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성원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 *

Check all that apply.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15. 기획부총장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써주세요.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출(Submit) 버튼을 눌러야 설문이 완료됩니다.

This content is neither created nor endorsed by Google.

Google Forms